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9호 [루체 제23376호] 주제100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청년들은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오늘의 대고조격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온 나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선군청년총동원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으며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짐승적방침이며

선군청년전위의 존엄과 영예를 비 상히 높여주고 청년들을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열어세기 위한 결사전으로 불리워야겠다는에서 중요한 계

기로 된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천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은 지금 당파 조국,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감을 심장깊이 새기고 있으며, 당의 명도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칠 월석의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위대한 형지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청년들은 당의 사상과 형도를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더욱 힘 있게 떨쳐나가야 합니다.』

당파 수령의 명도밑에 혁명의 널 대기마다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겨 온 것은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청년운동으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혁명령도의 전기 간 일관하게 청년 중시 정치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형도의 손길 아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희생과 헌신을 말휘하며 준엄한 혁명의 풍우를 뿜고 당과 혁명위업을 앞장에서 총격하게 반복되었던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혁명가들은 청년들이었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불뿜는 적

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돌격으로 개척한 영웅들도 청년들이였으 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 건설시기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불굴의 기개와 용맹을 펼친 선봉투사들도 청년들이였다.

이런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었기에 우리의 일심단결과 총대, 사회주의는 언제나 끄떡 없었으며 우리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 표되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각하

최고령도자이신 원수각하
나는 최고사령관이신 원수각하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사파관경심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 함께 경축하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 행복한 기회에 나는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각께서 건강장수하실것과 아울러 아름다운 귀국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용감한 귀국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영웅적이며 지극히 애국적인 위업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거두실것을 가장 충실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나의 부모님들과 나자신은 조선의 해방자이시고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전설적 영웅이신 가장 저명하신 김일성성주석의 후계자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평화 그리고 국가건설과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이적인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경력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나는 최고령도자이신 원수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훌륭하고 전실한 우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 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2011년 2월 8일 프놈펜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에티오피아령방민주공화국 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각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각각께서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언제나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가장 충실히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령방민주공화국 대통령

기르마 월데기 오르기스

2011년 2월 10일 아디스아바바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각하

각하
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와 파키스탄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경사스러운 각하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각각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그처럼 행복하게 존재하는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을 바립니다.

나는 또한 각각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가장 충실히 축원합니다.

각각께서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아씨프 알리 자르다리

2011년 2월 11일 이슬라마바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령도밑에 우리인민은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를 용감히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으며 앞날에 대한 신심과 땀을 흘려온다.』

걸출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혁명한령도는 혁명위업승리의 근본원천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회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당의령도밑에 넌대와 새기기를 이어 승리만을 이룩해온 긍지높은 혁명으로 자랑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드. 드』에서 달을 올린 우리 혁명이 모진 풍파와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로만 과감히 전진할수 있는 근본요인은 험난한 수령을 혁명의 수위에 놓이 모시고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대한 당의령도를 받아왔기때문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빛나는 모범으로 인류사에 빛을 뿐리고있는 항일혁명투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 그것은 결출한 수령의 령도를 믿을 때 그 어떤 강적도 쳐들리고 도란에 빠진 나리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으며 조국번영의 밝은 힘으로 떨칠될수 있다.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항일전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께서는 무장투쟁에 대한 당적령도실현에 무엇보다 큰 힘을 넣으셨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무력이 급격히 장성하고 당조직들이 확대됨에 따라 군사체계와 당조직체계를 수립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23(1934)년 3월 반일민족혁명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고 그해 5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 조선혁명전선에 대한 통일적령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은 당적령도밀에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당의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전체 민주풍고인민과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각께서 건강장수하실것과 아울러 아름다운 귀국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용감한 귀국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영웅적이며 지극히 애국적인 위업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거두실것을 가장 충실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나의 부모님들과 나자신은 조선의 해방자이시고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전설적 영웅이신 가장 저명하신 김일성성주석의 후계자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평화 그리고 국가건설과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이적인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경력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나는 최고령도자이신 원수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훌륭하고 전실한 우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 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2011년 2월 8일 프놈펜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전체 민주풍고인민과 함께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행복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되는 것을 충실히 드립니다.

나는 조선의 통일을 위한 혁신적인 로정에서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과 평화, 협조관계가 계속 심화되고 다양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각각께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양글라공화국 대통령

주제에 두드러두두스 쌈푸스

2011년 2월 16일 루안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에티오피아령방민주공화국 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각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각각께서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언제나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가장 충실히 축원합니다.

각각께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양글라공화국 대통령

주제에 두드러두두스 쌈푸스

2011년 2월 16일 루안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1년 2월 13일 몽마비데오

평양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우루파이 3월 2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자

청년 학생들의 결의 대행진

진행

【평양 2월 27일 발 조선 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파업을 철저히 판찰하며 선군청년총동원대회에서 제택된 호소문에 호응하는 청년 학생들의 결의대행진이 27일에 진행되었다.

김일성광장은 이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밟워낸 정신력을 충족발시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하기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청년전위들의 영웅적 기개를 파시할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참가자들과 청년 학생들의 혁명적 열정으로 뛰어번지고 있었다.

광장에는 『강성대국』, 『선군령도』, 『총공격전』이라는 자별구호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붉은기들이 나뭇가지 고았다.

청년동맹 일군들, 선군청년총동원대회 참가자들, 평양시내 청년 학생들이 결의대행진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가 광장에 걸려서 청년전위들은 우러렀다.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었다.

결의대행진에 앞서 출발도임이 있었다.

도입에서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랑독되었다.

광장에는 청년들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으로 부른 호소문을 펴놓은 심장마다에 받아았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기 전체 참가자들의 신념과 지지가 박차는 구호들이 울리되었다.

청년 학생들의 결의대행진이 시작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선두에 모신 대오가 청년동맹기발을 휘날리며 보무당 당히 주식단앞을 지나갔다.

열세인원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이며 선군혁명의 주력부대의 위용을 떨쳐가려는 참가자들의 열의의 분출인 양 『청년들은 당의 영도를 높이 밟고 주체혁명위업을 높이게 완성하라!』,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와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등

의 구호로가 하늘땅을 친감하였다.

개선 문방향으로 행진해 가는 참가자들의 열 굴마다에는 청년대군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줄 맹세의 함성이 거리를 진감하는 속에 청년동맹기발대행, 취주악대렬 등이 쑥쑥하게 전진해갔다.

조국의 큰 절도 모두 걸려고 청년단의 폐진도 다 쥐겠다는 포부를 암고 『우리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붉은기들을 휘날리며 거리로 향하였다.

당에서 벽을 울리면 천지를 휘둘고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김월, 홍남, 남홍을 비롯한 대고조전장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어가는 청년들의 충천한 기세가 행진대에 세차게 굽이쳤다.

부강조국건설에서 활약하는 청년대군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줄 맹세의 함성이 거리를 진감하는 속에 청년동맹기발대행, 취주악대렬 등이 쑥쑥하게 전진해갔다.

조국의 큰 절도 모두 걸려고 청년단의 폐진도 다 쥐겠다는 포부를 암고 『우리

는 혁명의 계승자』, 『더 높이 더 빨리』를 비롯한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며 보무당 당히 행진해 가는 청년 학생들을 수도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행진참가자들의 품품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처럼 품종

이 메아리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청년 학생들의 결의대행진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

업을 대를 이어 끌까지 완성

하며 선군조선청년의 본래와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앞당겨 청년전위들의 혁명적 기상과 전투적 기백을 힘있게 표시하였다.

청년 학생들의 결의대행진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

업을 대를 이어 끌까지 완성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성명

내외의 강력한 의의와 구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피리호전광들은 민족적 합의와 정전협정도 인증에 끌끌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바였다.

이미 계획한대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리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전투세에 들어섰으며 핵동력 항공포함 등 해상작전집단들이 남조선주변수역에 기동전개되었다.

공중전위주의 침략전쟁방식에 따라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타격비행대들도 출전대기 상태에 들어섰다.

미제와 남조선피리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동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압과 역적파당의 반민족적인 불리처제를 전면봉파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

군사연습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체제 『봉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깨리낌없이 공개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압과 역적파당의 반민족적인 불리처제를 전면봉파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군사연습으로 일떠세운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급변사태』나 『봉파』를 바라보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 고대하늘을 얼빠진 자들의 한갓 개꿈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려도 너무 모르는 청명파니들의 회비극적인 가소로운 망상이다.

만약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온다면 세계는 일찌기 알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전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오갖 대결장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는 서울불바다 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3.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2.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제거를 노리고 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맞서 단호히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수제 100 (2011) 년 2 월 27 일

판문점

1.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모두한 도발에 언제든지 정의의

전략적으로 맞서나갈것이다.

현 사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제에 감히 도전해나서려는 자들의 일련파괴행세를 위한 예비회담의 진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3.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

일제거를 노리고 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맞서 단호히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4.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5.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맞서 단호히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6.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7.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8.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9.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0.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1.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2.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3.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4.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5.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6.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7.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8.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19. 〈키 리졸브〉, 〈독수리〉 합

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

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격으로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20. 〈키 리졸브〉, 〈독수리〉 합

결사전을 벌린 7일간의 낮과 밤

지난 기간 장자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 양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설소에서 빛나는 혁신력을 떨치고 나라의 전력생산도태를 틈틈히 꾸리는데 크게 기여한 부수령역발전설사업소 건설자들이 지금 어탕천발전소건설장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해제하고 있다.

예년에 없는 폭설로 하여 2호발전소 철관로조립기일이 늦어지게 되었지만 지난해 말에도 사업소일군들과 동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의 국적현신성을 발휘하면서 7일간의 낮과 밤에 걸친 설거리를 벌여 기어이 철관로조립을 끝내는 위훈을 세웠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파수령을 끌어들이고 당파수령이 가리기는 길을 따라 험하게 쌔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폭설로 하여 철관로수송이 단분간 중지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사업소에서는 긴급협의 회가 열렸다. 협의회분위기는 저우며 두드러졌다. 철관로수송이 중지되면 어탕천 2호발전소 철관로조립기일이 그만 놓어지게 된다.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몸은 철관로수송장을 찾으면서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뛰어가는 아름드리 철관로들을 보시며 그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업소일군들과 동동자, 기술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어려운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공사속도를 훨씬 앞당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고무격려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

못 잊을 그날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뛰어번졌다.

맹세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여야 한다. 철관로들을 굽려 수송하자고 해도 도로가 온통 물과 얼음으로 뒤덮인 데다 차 직경이 수미나 되는 철관로를

실은 자동차가 철다리밑을 통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어야 합니다.』

강서구역 김일성화정일화온실로동자 라원남동무는 원군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다.

그는 가정에서 6남매의 막내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동생들이 있다.

인민군인들은 그에게 감사편지를 보내거나 그를 정답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한다.

원군길을 걸으면서부터 라원남동무는 조국보위초소의 수많은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파한다는데 역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사업소책임일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년말까지 2호발전소 철관

로조립을 끝내겠다는 것은 지난

5월 우리 발전소건설장을 찾았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여 우리가 다진 심장의 맹세입니다.

이 시각도 우리 장군님께서

눈보라를 헤치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길에 발걸음을 맞추며 난판을 맞았습니다.』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몸은 철관로수송장을 찾으면서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뛰어가는 아름드리 철관로들을 보시며 그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업소일군들과 동동자, 기술

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어려운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공사속도를 훨씬 앞당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고무격려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

못 잊을 그날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뛰어번졌다.

맹세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여야 한다. 철관로들을 굽려 수송하자고 해도 도로가 온통 물과 얼음으로 뒤덮인 데다 차

직경이 수미나 되는 철관로를

실은 자동차가 철다리밑을 통

파한다는데 역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사업소책임일군의 목소

리가 들렸다.

『년말까지 2호발전소 철관

로조립을 끝내겠다는 것은 지난

5월 우리 발전소건설장을 찾았

아래로 공사를 중단없이 밟고 나가는 대단한 압력을 내놓았다.

그렇게 되면 작업량은 배

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기

일은 불과 7일!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여기

저기서 호응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수송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윤수직장 직장장 조동휘동무

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통집

직장장이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길에 발걸음을 맞추며 난판을 맞았습니다.』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은 뜨겁

게 달아올랐다.

몸은 철관로수송장을 찾으면서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뛰어가는

아름드리 철관로들을 보시며

그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업소일군들과 동동자, 기술

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어려운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

도입함으로써 공사속도를 훨씬

앞당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고무격려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

못 잊을 그날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뛰어번졌다.

맹세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여야 한다. 철관로들을 굽려 수송하자고 해도 도로가 온통

물과 얼음으로 뒤덮인 데다 차

직경이 수미나 되는 철관로를

실은 자동차가 철다리밑을 통

파한다는데 역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사업소책임일군의 목소

리가 들렸다.

『년말까지 2호발전소 철관

로조립을 끝내겠다는 것은 지난

5월 우리 발전소건설장을 찾았

아래로 공사를 중단없이 밟고

나가는 대단한 압력을 내놓았다.

그렇게 되면 작업량은 배

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기

일은 불과 7일!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여기

저기서 호응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수송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윤수직장 직장장 조동휘동무

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통집

직장장이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길에 발걸음을 맞추며 난판을 맞았습니다.』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은 뜨겁

게 달아올랐다.

몸은 철관로수송장을 찾으면서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뛰어가는

아름드리 철관로들을 보시며

그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업소일군들과 동동자, 기술

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어려운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

도입함으로써 공사속도를 훨씬

앞당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고무격려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

못 잊을 그날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뛰어번졌다.

맹세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여야 한다. 철관로들을 굽려 수송하자고 해도 도로가 온통

물과 얼음으로 뒤덮인 데다 차

직경이 수미나 되는 철관로를

실은 자동차가 철다리밑을 통

파한다는데 역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사업소책임일군의 목소

리가 들렸다.

『년말까지 2호발전소 철관

로조립을 끝내겠다는 것은 지난

5월 우리 발전소건설장을 찾았

아래로 공사를 중단없이 밟고

나가는 대단한 압력을 내놓았다.

그렇게 되면 작업량은 배

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기

일은 불과 7일!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여기

저기서 호응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수송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윤수직장 직장장 조동휘동무

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통집

직장장이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길에 발걸음을 맞추며 난판을 맞았습니다.』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은 뜨겁

게 달아올랐다.

몸은 철관로수송장을 찾으면서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뛰어가는

아름드리 철관로들을 보시며

그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업소일군들과 동동자, 기술

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어려운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

도입함으로써 공사속도를 훨씬

앞당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고무격려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

못 잊을 그날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뛰어번졌다.

맹세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여야 한다. 철관로들을 굽려 수송하자고 해도 도로가 온통

물과 얼음으로 뒤덮인 데다 차

직경이 수미나 되는 철관로를

실은 자동차가 철다리밑을 통

파한다는데 역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사업소책임일군의 목소

군사적 대결은 용남 못 할 반민족적 죄악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남판계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거래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대결과 긴장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제 세도발행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결상태의 해소는 북남관계개선의 선결조건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의연히 긴장하고 첨예하다. 남조선당국은 부당한 구실과 조건을 내며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의 기회마저 망쳐놓고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전쟁을 불장난소동으로 대답해 나서고 있다. 그때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있지만 남조선당국은 구제의 연하게 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무력으로 해칠 위험한 흥제를 꾸미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약합하여 북침전쟁불장난으로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도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축출발의 초

긴장상태에 치닫고 있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온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대한 친목에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온 거래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끌고가는 용납 못 할 반민족적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전쟁책동은 우리의 선의에 대한 보람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며 고의적인 대화파괴행위이다.

우리는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미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체인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시종일관한 협력과 선의의 풍한 표시이다.

그럼에도 남조선당국은 북남군사실무 회담에 미지 못해 물러나와서는 긴장상태에 호상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위를 엄금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끌끌거려 거부하여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오늘에 와서는 전쟁불장난소동으로 대답해 나서고 있다.

대화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있지만 남조선당국은 구제의 연하게 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무력으로 해칠 위험한 흥제를 꾸미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약합하여 북침전쟁불장난으로 『키 리풀브』, 『독수리』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요

란히 터치는 것은 고의적인 대화파괴책

동이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전쟁책동은 북남관계개선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반통일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전쟁책동은 우리 선의에 대한 보람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며 고의적인 대화파괴행위이다.

우리는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미 남조선

북남관계개선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전쟁연습을 중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로 나선다. 전쟁연습의 총포성이 울리는 속에서는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커가기 마련이며 결국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3년간 북남관계가 부단히 악화되어온 것은 남조선당국이 대결정책을 점유하면서 미국과 약

합하여 『키 리풀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국제 도발행위로 엄금하자는 우리의

운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동족과 손을 잡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대결전쟁책동을 광범위으로 벌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보복』이니, 『웅정』이니 하는 폭언들을 미국과 내구해온 남조선호전파들은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우에는 북의 선군정치를 지지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이남민중은 선군정치의 명백한 수혜자다. 『정부』는 이남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

『북의 선군정치는 이남에 대한 평화를 수호해주는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는 21세기의 초강국』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녀의 민심은 확고히 위대한 선군령장이 신경에 있는 장군님께로 끌려고 있

으며 공포로 모으고 살아가고 있다. 누구도 가족을 끌고 해외로 피난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북에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막강한 전쟁역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의 『참말로』 인터네트홈페이지에도 『사실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이 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조선반도는 벌써 이마크처럼 미제의 전쟁폭탄을 맞았을 것이다. 이 민족을 살리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이 21세기 세계에 새로 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선언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하면서 이를 해설하는 글들을 실어 관심을 모았다.

남조선의 『참말로』

국립작곡가 문체, 나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립장을 겸치는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동족이 아니라 외세를 중시하고 그와 공조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이 내민 선의의 손길을 뿐이지 미국과 약합하여 남조선전진역에서 『키 리풀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외세와 공조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정책의 연장이다.

북남관계문체, 나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립장을 겸치는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동족이 아니라 외세를 중시하고 그와 공조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이 내민 선의의 손길을 뿐이지 미국과 약합하여 남조선전진역에서 『키 리풀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외세와 공조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정책의 연장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나 협의해온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떤 행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위대한 기치

위인 흠모심의 정화 - 령벽석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스위스, 벨가리아에서는 경축집회, 사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로씨야에서는 기념강연회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주제조선의 위용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이 『영광 및 나는 백두산고향집』, 『백두산총대로 빛나는 조국』, 『오늘의 평양』이 상영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조선인민의 위업을 치하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자신을 인민의 아들, 인민의 총복으로 간주하시는 김정일동지의 전정과 인민의 어버이이시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그를 모신 것을 최대의 행운으로 간직하고 그이를 높이 들어갈 일념에 넘쳐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브라질정당과 나이제리아단체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념글들을 올렸다.

브라질공산당은 12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주위업파 김정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1942년 2월 16일은 자주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빛 하였다.

벨가리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강하시어 주체혁명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

조선인제국주의세력의 반공화국책 등을 짓부시며 핵억제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위력떨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론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벨가리아진보적사회계는 언제나 조선인민의 위업을 치하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자신을 인민의 아들, 인민의 총복으로 간주하시는 김정일동지의 전정과

인민의 어버이이시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그를 모신 것을 최대의 행운으로 간직하고 그이를 높이 들어갈 일념에 넘쳐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김정일총비서에게 기념글들을 올렸다.

김정일총비서는 경상으로 1월 10일에

김정일동지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그는 김정일총비서에게 기원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인민을 위한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조선의 빅토리아수도에서 김정일동지의 명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동지의 명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존경과 존경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문기간 제 15차 김정일회

축전장을 참관하고 깊은 감동

을 받았다.

정말 훌륭하다.

축전장은 김정일총비서에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지지에 떠받들려 어울림에 피어난 물들로 황홀경을 이루었다.

김정일회는 위인 청송의 꽃이다.

자기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사무국장 격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사무국장 우에키 마사루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문기간 제 15차 김정일회 축전장을 참관하고 깊은 감동

을 받았다.

축전장은 김정일총비서에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지지에 떠받들려 어울림에 피어난 물들로 황홀경을 이루었다.

김정일회는 위인 청송의 꽃이다.

자기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돌림감기로

그리스에서 최근 H1N1형 돌림감기가 퍼져 인명피해를 입고 있다.

21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모시고 따르려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불멸의 꽃들에 어려웠다.

축전장을 돌아보면 서 김정일총비서에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신뢰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일총비서는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침착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고무를 받았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회의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총비서께서 승고한 경의를 드린다.

우리는 앞으로도 반체투쟁과 세계자주화업실현에서 세기되는 물체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돌림감기의 의한 사망자는 100명에 달하였다.

3월말에 가서 그 수는 더 들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제기되고 있는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에이즈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고민도 의연히 밭건도나나라들의 보건분야에서 적지 않은 해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밭건도나나라들은 주민들에게 보건분야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벌려놓은 것이다.

나나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약물공급과 치료제를 강구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생활방법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에 편집기사들은 밭건도나나라들은 무트보다

도 보건사업발전을 정부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나이제리아대통령은 윤리에 등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제국주의 후현상의 후파로 빙번히 들이닥친 자연재해들, 여례나리와 지역들에서 끊기지 않고 있는 내전과

그중에서도 각 종 질병과 전염병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주된 적이다.

의학계에서 불치의 병으로 불리우는 암으로만 최근

한해동안에 세계적으로만 760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270만명의 암환자

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신형독감이 퍼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잊어갔다. 부르

끼나파쓰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심각하게

로 벌써 입신부의 95%가 해산후 이 병을 험비리게 하고 있다. 현재 꾸바의 모든 주들에 당뇨병치료전문병원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B형간염 확진을 차

로 생산하고 있는 꾸비에서는

주민들에게 대량에 예방접종사업을 벌려놓은 환자수를 대폭 줄였다.

나나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약

물공급과 치료제를 강화하고 수령, 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였다.

돌림감기의 의한 사망자는 100명에 달하였다.

3월말에 가서 그 수는 더 들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제기되고 있는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에이즈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식민지 통치의 후과로 고민도 의연히 밭건도나나라들의 보건분야에서 적지 않은 해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밭건도나나라들은 주민들에게 보건분야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벌려놓은 것이다.

나나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약

물공급과 치료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생활방법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에 편집기사들은 밭건도나나라들은 무트보다

도 보건사업발전을 정부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나이제리아대통령은 윤리에 등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제국주의 후현상의 후파로 빙번히 들이닥친 자연재해들, 여례나리와 지역들에서 끊기지 않고 있는 내전과

그중에서도 각 종 질병과 전염병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주된 적이다.

의학계에서 불치의 병으로 불리우는 암으로만 최근

한해동안에 세계적으로만 760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270만명의 암환자

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신형독감이 퍼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잊어갔다. 부르

끼나파쓰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심각하게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

나나에서는 뇌막염이, 아미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폴리에

이 퍼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빙궁분체가